

## **1-2-2011 신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1:1-6

본문: 창세기 12:1-5

제목: **행함과 함께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더불어 그분의 자녀로,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의 신분을 주시기 위하여 (엡 1:4-10, 롬 8:17)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 이 천 여년 전에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마침내 그의 씨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람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다 (마 1:1-16).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성령 안에서 증거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증거했다 (갈 3:7,9,14). 또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갈 3:1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바 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롬 8:29,30)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비 집에 있었다. 그의 아비 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비의 집은 죄가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미리 아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기 원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의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창 12:1). 또한 그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갈 땅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후에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 12:2).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다 (창 12:3).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복을 성령의 약속이라 분명하게 증거했으며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갈 3:14).

본문에서 아브람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난 때 그의 나이가 칠십오 세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고향과 아비 집은 떠났지만 친족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형제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신대로 그에게 갈 땅을 보여주시며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음이라.”**(창 13:14-17) 아브람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갈 3:9)고 증거했는 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절차를 따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장소를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죄의 장소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죄의 장소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다. 죄의 장소는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온전히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브람이 롯과 함께 있었을 때는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후에 다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확정하셨다 (창 15:21). 확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으며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 15:6). 그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정식으로 맺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셨으니, 켈인들과 크니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창 15:18-21)

하나님께서서는 오랜 후에 다시 한 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약속의 아들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창 22:1-19).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셨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창 22:16-18)

그렇다! 그가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온전히 떠났을 때에 그가 가서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고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었을 때에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언약으로 확정하셨던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했다: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 하는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약 2:19-26)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인들에 편지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다.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히 11:8,17,18,19)고 증거했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온전히 떠났을 때에 가서 차지할

땅을 확정하셨고, 그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믿음대로 행하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을 확정하셨던 것이다. 동시에 그를 축복하는 자들과 나라들을 지금도 축복하시며 그를 저주하는 개인과 나라들도 저주하고 계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도 여전히 죄악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떤 약속의 말씀도 현실화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디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까지 달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계 18:4,5)

아브라함에게는 죄와 우상으로 가득찬 옛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을 큰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치고 계신 것이다. 큰 바벨론이 어디인가? 그것은 로마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통합에 동의한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있는 고향과 친족과 우상을 섬기는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곳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행할 때 마치 창조의 역사처럼 즉시 나타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떠난: LEFT)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일백 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막 10:29,30) 야멘! 할렐루야!

### **1-2-2011 New Year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1-6

Main scripture: Genesis 12:1-5

Subject: **The blessing of Abraham along with obedience**

God had chosen a man two thousand years before Christ appeared on the earth to give the blessing of his children as well as the joint heirs with Christ along with the eternal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his name was Abram (Eph. 1:4-10, Rom. 8:17).

Finally, Christ Jesus, the God of creation appeared on the earth through the blood line of Abram as his seed (Matt. 1: 1-16). Apostle Paul testified in the Spirit unto Galatians through his epistle: **They which are of faith, the same are the children of Abraham.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 And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Gal. 3:7,9,14) **Now to Abraham and his seed were the promises made. He saith not, And to seeds, as of many; but as of one, And to thy seed, which is Christ** (Gal. 3:16)

They that are born again of the Spirit are the seeds of Abraham; and they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estified by Apostle Paul in the Spirit. In other word, the children of God for whom he did foreknow; and called; and justified shall be the blessing as Abraham (Rom. 8:29,30).

When Abram was called by God, he was with his father in Babylon, Mesopotamia. His father was in the business dealing with idols. In other word, his father's house was the place of sin. When God had foreknown Abram, and wanted to choose him the blessing, he asked him to be out of his country, and from his kindred, and from his father's house (Gen. 12:1). And God also told him to show a land for him to go after he departs from his current place. God also gave the word saying, "I will make of thee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thee, and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Gen.12:2) God also gave him a promise saying,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Gen. 12:3) Apostle Paul testified clearly of this blessing the promise of the Spirit that is the blessing of being the children of God through the Spirit.

Abram was seventy five years old when he departed out of the country as the LORD had spoken unto him. But he didn't obey the word of the LORD perfectly, for he departed out of the country and father's house, but not out of his kindred. He was with Lot, the son of Haran, his brother. As many years were passed by, after he was separated from Lot, God told him second time showing the land to go: **"Lift up now thine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thou art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which thou seest, to thee will I give it, and to thy seed for ever. And I will make thy seed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an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shall thy seed also be numbered. Arise; walk through the land in the length of it and in the breadth of it; for I will give it unto thee."**(Gen. 13:14-17) Abram built an alter unto the LORD.

As Apostle Paul testified in the Spirit saying,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Gal. 3:9), he meant whosoever became the seeds of Abraham by faith shall be blessed in the same way as Abraham was blessed. In other word, whosoever became the children of Abraham by faith through the Spirit are also called by God to depart from the place of sin. The place of sin means all the places of sin living before they were born again of the Spirit. The place of sin could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en they stand before the Lord after they depart from such places, God is to speak where to go. God couldn't tell him when Abram was with Lot.

Afterwards, God confirmed his promise again (Gen. 15:21). Before he confirmed his promise, he tried his faith again, and Abram believed in the LORD; and he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Gen. 15:6). The God spoke to him giving him a covenant officially: **"The Kenites, and the Kenizzites, and the Kadmonites, And the Hittites, and the Perizzites, and the Rephaims, And the Amorites, and the Canaanites, and the Girgashites, and the Jebusites."**(Gen. 15:18-21)

The LORD God tried him once again after many years passed by. He asked Abram to give Isaac as a burnt offering (Gen. 22:1-19). The angel of the LORD confirmed the promise of God again, after he

passed this trial of God saying, **“And said, By myself have I sworn, saith the LORD, for because thou hast done this thing, and hast not withheld thy son, thine only son: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and in multiplying I will multiply thy seed as the stars of the heaven, and as the sand which is upon the sea shore; and thy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his enemies; And in thy seed shall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be blessed; because thou hast obeyed my voice. “(Gen. 22:16-18)**

Yes! When Abram departed from his country, and his kindred, and his father’s house completely, God showed the land for him to occupy confirming with a covenant. When he believed in the word of God not only in his heart, but he showed his faith with his works, God confirmed his promise that in him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Apostle James testified of faith and works through the example of Abraham: **“Thou believest that there is one God; thou doest well: the devils also believe, and tremble. But wilt thou know, O vain man,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Was not Abraham our father justified by works, when he had offered Isaac his son upon the altar? Seest thou how faith wrought with his works, and by works was faith made perfect?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impu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Ye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and not by faith only. Likewise also was not Rahab the harlot justified by works, when she had received the messengers, and had sent them out another way? ‘For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dead also.”(James 2:19-26)**

Apostle Paul wrote of the faith of Abraham to the Hebrews: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into a place which he should after receive for an inheritance, obeyed;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ither he went.... <sup>17</sup>By faith Abraham, when he was tried, offered up Isaac: and he that had received the promises offered up his only begotten son, Of whom it was said, That in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 Accounting that God was able to raise him up, even from the dead; from whence also he received him in a figure. “(Heb. 11:8,17,18,19)**

Yes! The blessing from the faith in God is to be realized by works according the words of God. When Abram departed completely according to his faith, his land to occupy was confirmed by God; and when he offered his only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the blessing of all families in him was confirmed as well. At the same time, God still is blessing them whether they are individuals or nations that bless him; also cursing them that curse him. The promise of blessing given unto Abraham still is realized for the children of God that obey the words of God. Nowadays, God is willing to give the blessing of Abraham unto all families of the earth through them that present the body as a living sacrifice as Abraham didn’t spare his life. But for them that not departed from the wicked world, any promise of God given unto Abraham cannot be realized, when though they are the children of Abraham. In the last days, where God asking the children of Abraham to depart from? Blessed are they that hear the voice of God crying unto his children: **“Come out of her, my people, that ye be not partakers of her sins, and that ye receive not of her plagues. For her sins have reached unto heaven, and God hath remembered her iniquities.”(Rev. 18:4,5)**

God asked Abram to be out of old Babylon where are full of sins and idols; now he is asking the children of God to depart from the Great Babylon under the judgment of God. Where is the Great Babylon located? He means all the churches that agree to the unification of religions helping the Roman Catholic Church. How could Abram receive the promise of God unless he had departed from his country, and his kindred, and his father’s house in Babylon? How could he have been in faith in God, if he had stayed therein? God is speaking unto us to receive the blessings as he promised for us through departing from all sinful worlds. If we believe his words only in our heart, not work according to the faith, nothing could happen, but when we work as we believe, the works of creation shall happen before our eyes in reality as he promised for us.

The God incarnated that spoke to Abram, now he is speaking unto us: **“Verily I say unto you, There is no man that hath left house, or brethren,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land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But he shall receive an hundredfold now in this time, houses, and brethren,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lands, with persecutions; and in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Mark 10:29,30) Amen! Hallujah!**